

# 감정과 호흡의 사정

작가 김세종

감정을 잡고 싶어서, 감정을 죽이고 싶어서,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다 남자는 여자를 건드린다. 이렇게 보면 결혼은 행운인가? 어리석다. 감정을 잡고 싶으면 사진을 남기고, 죽이고 싶다면 자위라도 할 수 있는 나라다. 내려받기도 못하는 자리인가? 느끼고 싶은 것은 해소가 다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만나서 자전처럼 들러 붙는 거니, 같이 여행가듯 떠난 겁니다. 서로 충분히 대화할 여유가 없었나 보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금강대도에서 봅시다. 서로를 느끼고, 같이하는 시간에 다 풀릴 일입니다. 음악도 그런 음악? 그런 자리? 그런 주변(사모은 물건들), 그러면 걸리죠. 당연함에 의문은 짜증나나요? 남자가 한걸음 앞서 가면, 여자도 한걸음 앞서 가야, 맺어지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도, 호흡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자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호흡이 짧아요, 그게 늘 걱정이라 혼자 고민하는게 이뻐 보이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어른들은 망상을 저지르고 맙니다. 실제로 호흡이 길어지고, 호흡을 다 알때, 성징일이 나타납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때, 조절못하면 담배피고, 습관처럼 섹스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세포가 충분히 호흡에 잠기지 않으면 주름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잡기도 힘들게 호흡이 짧아 지지요, 그러다 치매라 판단을 합니다. 그럼 치료법은 충분히 호흡을 느끼고, 명상하여 음부와 두부를 조절하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기르며 물을 자주 주어야 길어 집니다.

To grasp emotions, to kill emotions, to feel emotions, all men touch women. Is marriage lucky in this way? It's stupid. It's a country where you can take pictures if you want to hold onto your emotions, and if you want to kill, you can masturbate You can't even download it? All I want to feel is a solution. What's the problem? We met and stuck together like a bicycle, so we left as if we were traveling together. I guess we didn't have enough time to talk. May the deceased rest in peace. Let's meet at Geumgangdae-do. It's something that will be solved when we feel each other and do it together. Music like that? That kind of place? Those surroundings, then you get caught. Are questions of course annoying? If a man is one step ahead, then a woman is one step ahead, and so is the bond. There is no other way. It's self-defense, breath-taking, back-and-back. Children have short breaths, and that's why they always worry about it, so it's pretty to worry about it alone, and adults don't know it and go crazy. In fact, when you breathe longer, when you know all the breathing, you have sex days. I'm sure you all know. At this point, if you can't control it, you smoke and fall into sex addiction as a habit. If the cells aren't breathing enough, you'll get wrinkles. And it's hard to catch the memory, so the breathing gets shorter, and then you judge it as dementia. So the cure is to feel enough breathing, meditate, and control the vagina and the head. It gets longer if you raise yourself and water it often.

